

## CONTENTS

1. 국내펀드 동향
2. 해외펀드 동향
3. 현금유출입 동향
4. 변액보험

### <국내펀드>

국내주식형펀드,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과 기록

### <해외펀드>

해외주식형펀드, 신흥국 중심으로 추락

### <현금유입>

증시 하락에도 국내주식펀드는 자금유입,  
채권펀드는 자금 순유출 전환

### <변액보험>

변액보험 국내주식형 펀드 수익률 급락

이 보고서는 펀드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특정 운용사나 펀드를 권고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보고서의 내용에 의존해 행해진 누구의 어떠한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도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될 수 없습니다. [저작권]

2012년 5월 국내펀드 동향

**국내주식형 펀드,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과 기록**

국내주식형펀드 -6.99%  
월간성과 기록

**주식형 펀드 성과**

5월 국내주식형펀드 수익률은 그리스 유로존 탈퇴 우려와 미국 고용지표 예상치 하회 발표 등 대외적인 악재로 마이너스 성과를 기록했다.

펀드평가사 제로인(www.FundDoctor.co.kr)이 6월 1일 공시 기준가격으로 2012년 5월 한 달 동안의 펀드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국내주식형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7.10%를 보이며 2011년 8월 이후 최악의 월간 성과를 기록했다.

코스피지수는 연초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세로 2000선에 안착한 뒤 3월 이후 중국 경기 둔화 우려와 유로존 리스크 재점화로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과를 기록했다. 5월 코스피지수는 6.99% 하락하며 올해 들어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연초 이후의 상승분을 거의 상쇄해 연초후 코스피 수익률은 0.97%로 내려앉았다.

3월과 4월 하락장 속에서 중소형주 대비 비교적 견조했던 대형주의 낙폭이 커지며 KOSPI200인덱스펀드가 -7.68%의 수익률로 국내주식형 펀드중에 가장 성과가 저조했다. 이어 일반주식펀드는 -6.89%, 배당주식펀드는 -5.84%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중소형주식펀드가 주식형 펀드유형에서는 가장 양호한 -3.11%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채권에 일부 투자하는 일반주식혼합펀드는 -3.61% 하락했으며, 일반채권혼합펀드도 주식자산의 가치 하락폭이 커서 마이너스성으로 마감했다. 반면 절대수익추구형만이 플러스성과를 기록하며 본래 투자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국내 유형별 평균 수익률 및 순자산액**

기준일: 2012년06월01일

(단위: 개,억원, %)

대유형	소유형	펀드수	순자산액	수익률			
				1개월	3개월	1년	연초후
주식형	일반주식	1,353	366,232	-6.89	-9.48	-18.48	-0.63
	중소형 주식	83	12,188	-3.11	-7.47	-14.71	-1.26
	배당 주식	104	15,118	-5.84	-9.20	-15.69	-1.13
	KOSPI200인덱스	199	100,107	-7.68	-8.61	-13.08	2.18
주식혼합형	일반주식혼합	121	20,102	-3.61	-4.41	-8.36	0.47
채권혼합형	일반채권혼합	348	39,889	-1.90	-2.26	-2.98	0.89
절대수익추구형	채권알파	110	6,857	0.02	0.26	2.33	1.18
	시장중립	41	1,639	0.05	-0.10	-1.66	0.51
	공모주하이일드	20	1,281	0.06	0.29	2.43	1.33
KOSPI				-6.99	-9.20	-13.96	0.97
KOSDAQ				-1.45	-12.97	-2.60	-5.65

주1) 순자산액 10억원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 국내 주식펀드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개별 주식 펀드**

순자산액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640개 국내주식형 펀드 중 단 4개 펀드만이 5월 동안 플러스 성과를 기록했다.

5월 코스피지수는 6.99% 하락한데 비해 코스닥지수는 1.45% 하락하며 낙폭이 작았다. 이 영향으로 코스닥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들이 월간 최우수 성과를 기록했다. '동양FIRST스타우량상장지수(주식)'펀드는 5월 동안

5.84%의 성과를 기록했다. 이 펀드는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50종목으로 구성된 지수를 추종한다. 플러스 성과를 기록한 다른 3개의 코스닥

상장지수펀드(ETF)들은 모두 코스닥시장에서 시가총액이 큰 우수 종목들로 이루어진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이다.

중소형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들도 상위권을 기록했다. ‘삼성중소형FOCUS 1[주식](A)’ 펀드와 ‘동양중소형고배당 1(주식)ClassC’ 펀드가 각각 -0.74%와 -1.52%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일반주식형 펀드중에서는 ‘에셋플러스코리아리치투게더 자1’펀드가 -2.68%의 수익률로 중소형주식유형이 아닌 펀드 중에서 가장 우수했다. 이 펀드는 국내 각 산업의 경쟁력을 갖춘 일등기업에 투자하는 운용 전략을 갖고 있으며 5월 하락장에서 비교적 방어를 잘했다.

국내주식형 펀드중에 월간 성과 하위권은 레버리지인덱스 상장지수펀드(ETF)들이 차지했다. ‘미래에셋TIGER레버리지상장지수[주식-파생]’펀드와 ‘삼성KODEX레버리지상장지수[주식-파생재간접]’펀드가 -15.86%의 동일한 성과로 가장 저조한 성과를 기록했다.

이 밖에 조선과 IT 업종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들도 동기간 성과가 저조했다.

**국내 주식형 펀드 월간 성과 상위 10**

기준일: 2012년06월01일

(단위: 억원, %)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수익률		
			1개월	3개월	연초후
동양FIRST스타우량상장지수 (주식)	159	기타인덱스	5.84	-9.69	-5.29
한국투자KINDEX코스닥스타 상장지수(주식)	127	기타인덱스	3.60	-12.82	-8.39
미래에셋TIGER코스닥프리미어상장지수(주식)	513	기타인덱스	3.46	-9.12	-3.79
KStar코스닥엘리트30 상장지수(주식)	182	기타인덱스	3.31	-13.16	-9.20
삼성중소형FOCUS 1[주식](A)	1,867	중소형주식	-0.74	-1.33	3.75
동양중소형고배당 1(주식)ClassC	1,316	중소형주식	-1.52	-10.93	-2.51
에셋플러스코리아리치투게더 -자 1	850	일반주식	-2.68	-8.70	-1.90
KB중소형주포커스자[주식] A	299	중소형주식	-2.79	-3.27	18.73
한국밸류10년투자 1[주식](C)	6,912	일반주식	-3.21	-9.27	-4.53
한국밸류10년투자연금 1(주식)	2,709	일반주식	-3.47	-8.39	-2.23

**국내 주식형 펀드 월간 성과 하위 10**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수익률		
			1개월	3개월	연초후
미래에셋TIGER레버리지상장지수[주식-파생]	385	기타인덱스	-15.86	-18.43	1.60
삼성KODEX레버리지상장지수[주식-파생재간접]	13,109	기타인덱스	-15.86	-18.22	1.23
KB KStar레버리지상장지수[주식-파생재간접]	220	기타인덱스	-15.85	-18.22	1.56
한국투자KINDEX레버리지상장지수[주식-파생]	169	기타인덱스	-15.84	-18.47	
하나UBS파워1.5배레버리지인덱스[주식-파생]종류A	713	기타인덱스	-11.96	-13.76	1.98
NH-CA1.5배레버리지인덱스 [주식-파생]Class A	3,612	기타인덱스	-11.86	-13.77	2.03
삼성KODEX조선주 상장지수[주식]	129	기타인덱스	-11.00	-22.35	6.95
미래에셋TIGER IT상장지수[주식]	158	기타인덱스	-10.28	-9.58	4.38
KDB 2020주권회복법인전용 1[주식] CI 1	194	일반주식	-9.50	-12.22	-1.69
미래에셋러브에이지변액보험 1[주식]C-F	810	일반주식	-9.49	-12.46	-4.34

주1) 1개월 수익률순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주2) 순자산액 100억원 이상, 1개월 이상 운용 펀드 대상

주3) 클래스의 경우 대표 펀드만 표시

## 채권형 펀드 성과

### 국내채권형 0.59% 성과 기록

5월 유로존 리스크 우려로 채권시장이 강세 마감하며 국내채권형 펀드 수익률은 0.59% 상승했다.

5월 그리스 대선 이후 주요 정당들이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연정 구성에 실패하면서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 가능성이 높아졌다. 6월에 있을 재총선 까지 불확실성이 커지며 전세계적인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강해졌다. 스페인 부실은행들의 구제금융 문제가 유럽 재정위기의 주요 문제로 새롭게 떠오르면서 채권시장 강세 기조가 이어졌다.

국내 채권형 펀드는 모든 유형에서 5월 동안 플러스 성과를 기록했다. 단기물보다 중장기물 채권이 강세를 보여 일반중기채권펀드의 수익률이 0.69%로 가장 우수했다. 일반채권펀드와 우량채권펀드가 0.49%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그 뒤를 이었다. 초단기채권펀드는 0.31%의 수익률로 채권형 중에서는 가장 저조했다.

### 일반중기채권 펀드 0.69%로 1위

#### 국내 채권형 유형 평균 수익률 및 순 자산액

기준일: 2012년06월01일

(단위: 개, 억원, %)

대유형	소유형	펀드수	순자산액	수익률			
				1개월	3개월	1년	연초후
채권형	일반채권	108	12,005	0.49	1.17	4.37	1.80
	초단기채권	8	5,330	0.31	0.91	3.59	1.53
	일반중기채권	70	33,569	0.69	1.34	4.92	1.83
	우량채권	36	7,707	0.49	1.10	3.99	1.55
	하이일드 채권	19	972	0.44	1.28	5.14	2.08
KIS채권지수(1년 종합)				0.34	0.97	3.86	1.62
MMF	MMF	145	623,413	0.27	0.82	3.34	1.38

주1) 순자산액 50억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국내 채권펀드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 개별 채권 펀드

순자산액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72개 채권형 펀드 중 한 개를 제외하고 모두 플러스 성과를 기록했다.

10년 국고채지수를 추종하는 ‘우리KOSEF10년국고채상장지수[채권]’이 1.23%의 수익률로 가장 좋은 성과를 기록했다.

‘미래에셋퇴직플랜자1(채권)종류C’와 ‘미래에셋엠브렐러전환(채권)종류C-i’가 0.82%의 수익률로 그 뒤를 이었다. 두 펀드 모두 중장기 채권에 주로 투자해 평균듀레이션이 유형평균에 비해 길게 가져가고 있는 점이 중장기물 강세장에서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게 했다. 4월달에도 두 펀드는 채권형 펀드 중에서 최우수 성과를 기록했다.

채권시장의 전반적인 강세 영향으로 한 개의 펀드만이 마이너스 성과를 기록했다. ‘메리츠힘찬국채플러스1[채권]종류A’는 -0.24%의 수익률로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과를 기록했다. 이 펀드는 국채 및 RP를 보유하면서 고정금리로 자금을 차입해서 변동금리로 자산을 운용하는 효과를 갖는 2RS Pay 계약을 하고 있어 금리 하락에 평가 손실을 보며 저조한 성과를 기록했다.

초단기채권펀드들도 월간 성과 하위권을 차지했다. ‘하나UBS4[어음]’은 0.28%의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하나KODEX단기채권상장지수[채권]’과 ‘우리KOSEF단기자금상장지수[채권]’은 0.29%의 성과를 기록했다.

국내 채권형 펀드 월간 성과 상위 10

기준일: 2012년06월01일

(단위: 억원, %)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수익률		
			1개월	3개월	연초후
우리KOSEF10년국고채상장지수[채권]	319	중기채권	1.23	1.86	2.18
미래에셋퇴직플랜자 1(채권)종류C	146	중기채권	0.82	1.59	2.14
미래에셋엠브렐러 전환(채권)종류C-i	252	중기채권	0.82	1.56	2.06
삼성ABF Korea인덱스 [채권](A)	3,025	중기채권	0.81	1.46	1.98
미래에셋증장기자[채권]종류C-I	1,320	중기채권	0.80	1.44	1.82
미래에셋개인연금 전환 1(채권)	136	중기채권	0.79	1.52	1.98
한국투자퇴직연금 자 1(국공채)	510	우량채권	0.74	1.30	1.75
교보약사Tomorrow장기우량K- 1(채권)Class A	15,230	중기채권	0.72	1.44	1.93
교보약사Tomorrow장기우량자 2(채권)Class Af	2,427	중기채권	0.71	1.43	1.94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7090연금전환자 1[채권]	293	일반채권	0.69	1.39	1.97

국내 채권형펀드 월간 성과 하위 10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수익률		
			1개월	3개월	연초후
메리츠힘찬국채플러스 1[채권]종류 A	200	우량채권	-0.24	0.41	
하나UBS 4[어음]	310	초단기채권	0.28	0.88	1.48
삼성KODEX 단기채권상장지수[채권]	3,037	초단기채권	0.29	0.85	
우리KOSEF단기자금상장지수[채권]	1,110	초단기채권	0.29	0.89	1.50
신한BNPP BEST CHOICE단기 4[채권](종류C)	182	일반채권	0.31	0.87	1.46
하나UBS인Best연금 1[국공채]	168	일반채권	0.35	0.86	1.29
뉴개인연금채권S- 1	614	일반채권	0.37	0.95	1.45
한국투자장기회사채형 1(채권)(C)	373	일반채권	0.37	1.08	1.85
하나UBS인Best연금 1[채권]	584	일반채권	0.38	0.97	1.46
한화정통액티브 1[채권]종류B	131	일반채권	0.40	1.00	1.54

주1) 1개월 수익률순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주2) 순자산액 100억원 이상, 1개월 이상 운용 펀드 대상

주3) 클래스의 경우 대표 펀드만 표시

## 주식 시장

### 5월 코스피 -6.99%

5월 국내증시는 코스피지수가 6.99% 하락해 2012년 들어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으며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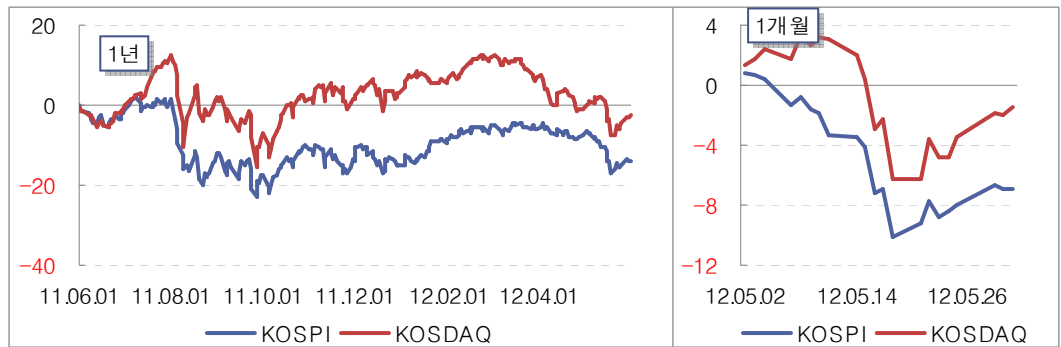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연정 구성의 실패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점과 유럽 은행들이 6월 말까지 BIS자기자본 비율을 9%로 높여야 하는 점이 주식시장 급락을 유발했다. 외국인들은 5월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 4조원을 순매도 하며 수급부담을 가중시켰다.

대형주가 7.42% 떨어지며 가장 큰 낙폭을 보였고 중형주 4.67%, 소형주는 6.27%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업이 1.20%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서 마이너스 성과를 기록했다. 4월에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던 의료정밀이 -24.20% 수익률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전기전자(-12.11%), 섬유 의복(-12.05%), 비금속 광물제품(-11.61%) 업종이 10% 이상 하락하며 코스피지수를 끌어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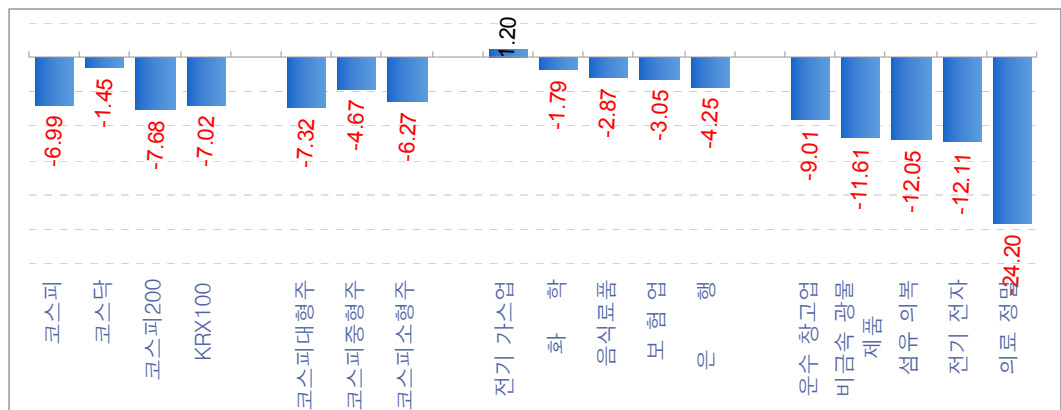
### 국내 주가지수 추이 (1년)

기준일 : 2012년05월31일



### 거래소 주요 지수 및 업종별 상하위 1개월 수익률

기준일 : 2012년05월31일



자료 : KOSCOM

### 채권 시장

5월 국내 채권시장은 그리스의 연합정부 구성에 실패와 Grexit(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에 우려로 불안감이 고조되어 강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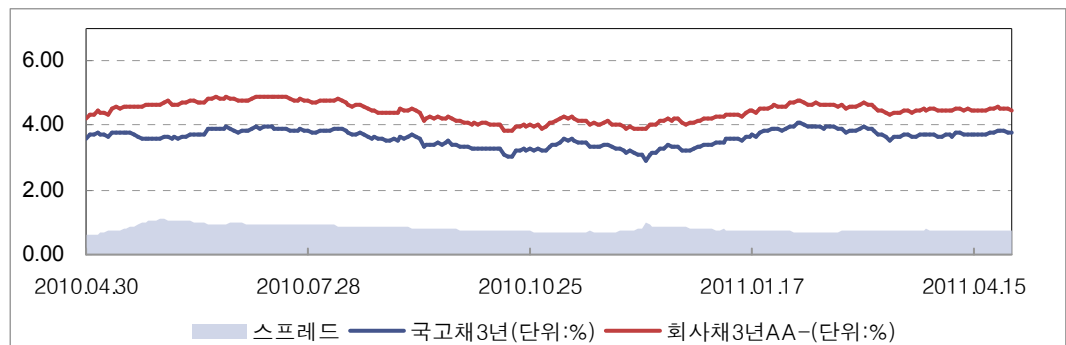
월초 미국의 비농업부문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발표된 것과 프랑스 좌파정권 집권에 따른 재정위기 악화 우려로 채권 금리가 하락세를 보였으나 월중반 이후에는 금리레벨 부담으로 보험권 정체 흐름이 이어졌다. 월말 이후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우려와 대내외 주요 증시 하락 속에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면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두드러졌다.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 문제가 불거진 이후 안전자산 선호기조는 더욱 강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국고채 3년물과 5년물은 각각 전월말 대비 13bp 하락한 3.32%, 3.43%로 마감했으며 국고채 1년물은 9bp 하락한 3.33%로 마감했다. 그동안 단기물과 장기물에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중기물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황윤아 제로인 펀드애널리스트 [www.FundDoctor.co.kr](http://www.FundDoctor.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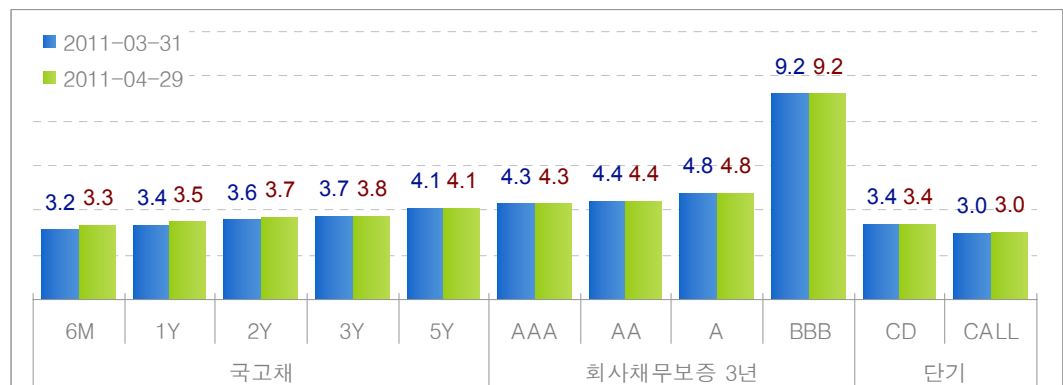
#### 국내 주요 채권금리 추이(1년)

기준일 : 2012년05월31일



#### 월간 채권 금리 동향

기준일 : 2012년05월31일



자료:본드웹

## 해외주식형펀드, 신흥국 중심으로 추락

### 해외펀드 5월 수익률 하락

유로존 공포가 신흥국을 덮치며 5월 해외주식형펀드 수익률은 일제히 하락했다.

그리스의 EU탈퇴 우려와 스페인의 구제금융, 이탈리아의 국채 입찰수요 감소 등 해외증시 악세를 가속화 시키는 요인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 변동에 민감한 신흥국 중심으로 해외주식펀드들은 줄줄이 마이너스 성과를 냈다.

### 해외펀드 전 유형 마이너스 성과

러시아주식펀드와 브라질주식펀드가 10%이상 급락했으며, 수출 둔화와 통화 약세가 맞물리며 유럽신흥국 및 남미신흥국주식펀드도 증시 하락에 크게 흔들린 모습이였다.

글로벌 증시와 외국인 수급에 민감한 홍콩 H지수가 급락한 것에 비해 중국본토 상해지수가 선방하면서 낙폭을 줄여 중국주식펀드의 성과가 개별 국가 중에 가장 양호했다.

섹터펀드 중에서는 금속, 원유 등 원자재 가격 급락에 타격을 입은 기초소재 섹터펀드의 성과가 가장 저조했으며, 방어주섹터인 헬스케어섹터펀드는 하락장에서 선방했다.

### 해외펀드 유형별 수익률 및 순자산액

기준일: 2012년 06월 01일

(단위: 개, 억원, %)

대유형	소유형	펀드수	순자산액	수익률			
				1개월	3개월	1년	연초후
해외주식형		1,820	211,146	-8.98	-12.16	-20.10	1.59
	글로벌주식	82	3,611	-8.27	-7.88	-10.73	2.64
	글로벌신흥국주식	283	43,577	-10.80	-15.96	-21.32	-1.17
	유럽주식	54	1,456	-6.55	-7.86	-12.33	1.69
	북미주식	55	2,273	-6.63	-4.80	-2.39	5.95
	아시아태평양주식	35	1,204	-8.16	-10.53	-15.33	0.75
	아시아태평양주식(ex J)	78	12,253	-7.37	-7.58	-12.96	3.56
	동남아주식	71	2,488	-6.57	-3.87	-3.69	5.84
	아시아신흥국주식	88	11,989	-9.16	-12.53	-21.86	2.30
	유럽신흥국주식	61	2,680	-14.24	-17.71	-28.84	-0.72
	남미신흥국주식	63	4,286	-12.08	-17.45	-19.61	-2.57
	프론티어마켓주식	28	177	-4.60	-1.83	-6.60	6.87
	일본주식	62	1,722	-9.40	-10.77	-11.56	0.46
	중국주식	439	100,996	-7.60	-9.85	-20.63	3.52
	인도주식	76	4,615	-8.22	-15.37	-22.18	3.18
	브라질주식	49	2,287	-12.19	-22.42	-23.45	-6.08
	러시아주식	44	4,259	-15.74	-19.35	-29.63	0.23
	에너지섹터	61	1,878	-10.14	-17.50	-24.43	-9.38
	기초소재섹터	48	5,073	-15.34	-23.47	-32.47	-10.84
	소비재섹터	15	341	-5.90	-2.25	4.48	12.59
	헬스케어섹터	7	89	-2.45	1.22	4.80	7.56
	금융섹터	33	682	-9.29	-9.64	-16.50	3.52
	멀티섹터	51	2,895	-5.34	-3.88	-0.18	4.98
해외주식혼합형		85	21,005	-5.87	-3.48	-10.67	5.83
해외채권혼합형		114	2,672	-2.92	-3.84	-3.97	1.76
해외채권형		174	38,075	-1.77	-0.98	1.97	3.79
해외부동산형		53	9,930	-1.52	-0.13	5.92	9.40
커머더티형		100	4,762	-7.84	-11.59	-18.30	-4.64

주1) 펀드수, 순자산액은 해당유형 가중평균수익률

계산시 대상으로 삼은 운용순자산액 10억원이상 펀드들의 합계

자료: 제로인 (www.funddoctor.co.kr)



**해외주식펀드 월간  
8.98% 하락**

펀드평가사 제로인(www.FundDoctor.co.kr)이 6월 1일 공시된 기준가격으로 5월 해외주식형펀드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한달간 -8.98%의 수익률로 2011년 9월 이후 최저 월간성적을 보였다. 연초 이후 수익률은 1.59%를 기록했다.

**러-브펀드 성과 최저  
10% 이상 하락**

해외주식형펀드 전 유형이 마이너스 성과를 기록한 가운데 수출주도국인 러시아주식펀드는 -15.74%의 수익률로 곤두박질 쳤다. 이는 금융위기가 한창이었던 2009년 12월 이후 최악이다. 유럽재정위기 및 정치 불안감이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조정을 받은 것이 지수 하락의 원인이 됐다. 러시아 RTS지수는 연중 최저치까지 급락했으며, 국제유가가 90달러선을 밀돌며 석유주가 지수하락을 이끌었다.

세계경제 둔화 우려가 상품 수요 감소로 이어지며 원자재 관련 비중이 높은 브라질주식펀드도 -12.19%로 크게 하락했다. 대외 환경 악화와 중국 긴축으로 수출 둔화세가 지속된 요인이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브라질 보베스파지수 역시 5월 한 달간 12% 가까이 하락해 낙폭이 심했다.

**유럽신흥국주식펀드  
-14.24%**

브릭스 국가를 중심으로 경기둔화를 우려한 신흥국주식펀드들의 성과가 도미노처럼 무너졌다. 유럽신흥국주식 펀드와 남미신흥국주식 펀드들은 각각 -14.24%, -12.08%를 기록했고, 글로벌신흥국주식펀드도 10.80% 하락했다. 유로존 위기 개선이 불투명해지며 수출 둔화에 통화 가치도 약세를 면치 못한 것이 저조한 성과의 요인이 됐다.

**인도주식펀드 -8.22%**

인도주식펀드도 8.22% 하락했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증시 상승은 제한적이었다. 루피화 약세로 경상수지 적자확대, 인플레이션 심화 등 가시지 않는 악재가 증시의 발목을 잡았다. 루피화는 5월말(56.38루피)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경기 둔화를 야기시켰다.

**일본주식펀드 -9.40%**

일본주식펀드도 -9.40%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유로존 여파, 피치의 일본 국가신용등급 강등, 수출실적 예상치 하회 등이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엔화 가치 상승도 증시 상승에 부담이 됐다.

**중국주식펀드 -7.60%**

중국주식펀드는 7.60% 하락하며 해외주식형펀드 소유형 중 비교적 하락폭이 적었다. 아시아신흥국주식펀드도 9.16% 떨어졌다. 지준율 인하 등 중국정부의 내수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 압박을 완화시켰고, 성장을 또한 두 자리를 유지하는 등 위축된 시장에서 펀드의 하락폭을 상쇄했다. 반면, 노출도가 큰 홍콩 H지수는 5월 한달간 13% 가까이 하락하는 등 해외증시의 타격을 심하게 입었다.

**에너지섹터펀드  
-10.31%**

섹터펀드별로 수익률을 살펴보면 유로존 위기와 달러 강세로 불거진 국제유가와 상품가격 하락에 기초소재섹터펀드 및 에너지섹터펀드가 각각 -15.34%, -10.14%의 성과로 급락했다. 유럽 재정위기 재부각에 따른 금융섹터펀드도 -9.29%로 부진했다. 소비재섹터와 멀티섹터펀드는 각각 5.90%, 5.34% 떨어졌고, 경기에 둔감한 헬스케어섹터펀드는 2.45% 하락해 비교적 낙폭이 적었다.

해외채권형펀드 수익률은 1.77% 하락했다. 해외채권혼합형도 -2.92%, 해외주식혼합형은 -5.87%로 모두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국제 원자재 및 상품가격 하락으로 커머더티형은 한달간 7.84% 떨어졌다.

**개별 해외 펀드 성과**

**해외주식형펀드 중  
15개 펀드 플러스 성과**

순자산액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1개월 이상인 260개 해외주식펀드(모든 클래스 포함) 중 15개 펀드만이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중국본토주식펀드  
상위권 독차지**

지난 달에 이어 중국주식펀드들의 성과가 이어졌다.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5월 한달 동안 0.99% 하락해 선방한 반면, 홍콩 H지수는 12.59% 하락하며 가장 큰 폭으로 떨어져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해외주식펀드 월간 성과 상위권에는 중국 본토투자펀드들로 채워졌다. 중국 본토 A주에 투자하는 '이스트스프링차이나드래곤AShare자(UH)[주식]클래스 A'펀드가 하락장에서 6.23%의 성과를 올리며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

그 뒤를 '이스트스프링차이나드래곤AShare자(H)[주식]클래스A'펀드가 2.90%, '한화꿈에그린차이나A주자UH- 1(주식)C/Cf2'펀드가 2.79%, '삼성CHINA2.0 본토 자 2[주식](A)'펀드가 2.58%의 월간성과를 올렸다.

**유럽신흥국주식펀드  
부진**

반면 유럽신흥국주식펀드인 '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 1(주식)종류A'펀드가 -17.56%의 월간성과로 해외주식형펀드 중 가장 저조했다. '미래에셋러시아업종대표자 1(주식)종류A', 'KB러시아대표성장주자(주식)A', '신한BNPP더드림러시아 자 1[주식](종류A)'펀드 등 러시아펀드들도 하락장에서 부진한 모습이었다.

[강영민 제로인 펀드애널리스트 [www.FundDoctor.co.kr](http://www.FundDoctor.co.kr)]

**해외 주식형 펀드 월간 성과 상위 10**

기준일: 2012년 06월 01일

(단위: 억원, %)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수익률		
			1개월	3개월	연초후
이스트스프링차이나드래곤AShare자(UH)[주식]클래스A	1,815	중국주식	6.23	8.98	12.99
이스트스프링차이나드래곤AShare자(H)[주식]클래스A	1,123	중국주식	2.90	4.96	11.32
한화꿈에그린차이나A주자UH- 1(주식)C/Cf2	332	중국주식	2.79	2.82	12.74
삼성CHINA2.0본토 자 2[주식](A)	148	중국주식	2.58	1.52	5.96
KB중국본토A주자(주식)A	498	중국주식	0.75	2.19	6.84
한국투자네비게이터중국본토자 H(주식)XA	1,091	중국주식	0.46	1.54	4.47
KTB차이나스타A주자H(주식)종류C	500	중국주식	0.18		
동양차이나본토주식자 H(주식)ClassA	490	중국주식	-0.72	-1.99	8.27
삼성CHINA본토포커스자 1[주식]_A	714	중국주식	-0.88	-2.52	4.29
삼성CHINA2.0본토 자 1[주식](A)	1,269	중국주식	-1.29	-2.78	4.68

**해외 주식형 펀드 월간 성과 하위 10**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수익률		
			1개월	3개월	연초후
미래에셋MSCI이머징유럽인덱스 1(주식)종류A	142	유럽신흥국주식	-17.56	-22.67	-4.35
미래에셋러시아업종대표자 1(주식)종류A	202	러시아주식	-17.49	-22.65	-4.11
블랙록월드광업주자(주식)HX(A)	2,067	기초소재섹터	-17.48	-25.04	-11.89
한화차이나H 스피드업1.5배자(주식-파생)종류A	158	중국주식	-17.02	-25.21	-4.06
KB러시아대표성장주자(주식)A	180	러시아주식	-16.66	-22.89	-4.95
신한BNPP더드림러시아 자 1[주식](종류A)	281	러시아주식	-16.42	-20.53	-2.79
신한BNPP봉쥬르러시아 자(H)[주식](종류A 1)	275	러시아주식	-15.91	-19.92	-2.27
JP모간러시아자(주식)A	1,763	러시아주식	-15.52	-18.80	2.64
신한BNPP봉쥬르동유럽플러스 자(H)[주식](종류A 1)	750	유럽신흥국주식	-15.49	-20.05	-2.87
미래에셋브라질러시아업종대표자 1(주식)종류A	284	글로벌신흥국주식	-14.97	-23.71	-5.81

주1) 1개월 수익률순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http://www.funddoctor.co.kr))

주2) 순자산액 100억원 이상, 1개월 이상 운용 펀드 대상

주3) 클래스의 경우 대표 펀드만 표시

2012년 5월 펀드자금 동향

**증시 하락에도 국내주식펀드는 자금유입, 채권펀드는 자금 순유출 전환**

**공모펀드 자금동향**

5월 공모펀드 설정액은 주식형펀드와 머니마켓펀드(MMF)를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되며 증가세를 보였다. 혼합형펀드의 설정액도 소폭 늘었다. 반면에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던 채권형펀드는 순유출으로 전환했다.

**5월 공모펀드 설정액  
2조 3,032억원 증가**

펀드평가사 제로인(www.FundDoctor.co.kr)의 유형분류기준에 따라 펀드 자금동향을 조사한 결과, 공모펀드 설정액은 6월 초 현재 183조 4,075억원으로 집계됐다. 1개월 동안 2조 3,032억원의 설정액이 증가했으며, 현금흐름도 2조 3,023억원이 유입됐다. 주식형과 MMF 펀드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됐다.

**채권형펀드 설정액 감소**

유형별로 현금흐름을 살펴보면 5월 한 달 동안 주식형펀드와 MMF에서 각각 1조 4,011억원, 9,914억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또한 혼합형펀드에서도 801억원이 늘어났다. 그 동안 안전자산 선호심리로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됐던 채권형 펀드에서는 1,934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와 해외 펀드 유형의 자금 유출입 현황은 상반된 행보를 보였다. 국내펀드는 채권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자금이 유입된 반면에 해외펀드에서는 채권형 펀드에만 자금이 유입되었다.

**공모펀드 유형별 1개월간 자금 추이**

기준일: 2012년06월01일

(단위:개, 억원)

	펀드수	설정액	설정액 순증감	순자산액	비중	현금흐름
주식형	4,494	919,291	14,730	764,972	45.70	14,011
혼합형	1,273	122,968	658	113,860	6.80	801
채권형	476	102,949	-1,895	104,313	6.23	-1,934
MMF	169	620,262	9,595	630,784	37.68	9,914
기타	859	68,606	-56	59,973	3.58	231
<b>총계</b>	<b>7,271</b>	<b>1,834,075</b>	<b>23,032</b>	<b>1,673,902</b>	<b>100.00</b>	<b>23,023</b>
국내주식형	2,404	620,689	18,559	553,763	33.08	16,600
국내혼합형	1,042	91,975	1,163	90,110	5.38	1,173
국내채권형	288	65,145	-2,544	66,226	3.96	-2,555
국내MMF	169	620,262	9,595	630,784	37.68	9,914
국내기타	615	44,614	216	40,078	2.39	420
<b>국내소계</b>	<b>4,518</b>	<b>1,442,686</b>	<b>26,989</b>	<b>1,380,960</b>	<b>82.50</b>	<b>25,552</b>
해외주식형	2,090	298,601	-3,829	211,209	12.62	-2,588
해외혼합형	231	30,992	-505	23,750	1.42	-372
해외채권형	188	37,804	648	38,088	2.28	621
해외기타	244	23,992	-271	19,895	1.19	-189
<b>해외소계</b>	<b>2,753</b>	<b>391,389</b>	<b>-3,957</b>	<b>292,942</b>	<b>17.50</b>	<b>-2,529</b>

주1) 제로인 유형분류기준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주2) ETF제외

주3) 설정액 순증감은 재투자분 제외, 현금흐름은 실제 자금유출입액

주4) 혼합형은 국내외 주식혼합형, 채권혼합형, 절대수익추구형을 포함

주5) 기타는 국내외 기타, 부동산형, 커머더티형을 포함

## 국내주식형 펀드 자금동향

국내주식형펀드 설정액  
1조 8,559억원 증가

2012년도 5월 동안 국내주식형 펀드 설정액(ETF제외)은 1조 8,559억원 증가한 62조 689억원으로 집계됐다. 실제 현금흐름으로는 1조 6,600억원이 유입됐다.

주식형 전체 유형 펀드  
자금 순유입

1분기 국내주식펀드의 설정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4월에 이어 5월에도 순유입을 지속했다. 한달 간 모든 소유형의 주식펀드로 자금이 유입됐다. 일반주식형펀드의 설정액이 1조원 이상 증가하면서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K200인덱스펀드도 4800억 가까이 증가했다.

세부유형별 현금흐름을 살펴보면, 일반주식펀드로 8,930억원의 자금이 유입됐으며, K200인덱스펀드에서도 4,516억원 늘어났다. 그 외에 기타인덱스와 중소형펀드에도 각각 1,438억원, 866억원 순유입됐다. 테마주식과 배당주식펀드에서는 각각 584억원, 266억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개별 펀드별로는 운용펀드 기준으로 '교보학사파워인덱스파생상품투자신탁 1' 펀드자금이 1358억원 증가하며 5월 자금유입 규모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로는 '한국투자네비게이터증권투자신탁 1(주식)' 펀드의 설정액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한 달간 1,263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투자삼성그룹적립식증권투자신탁 1(주식)' 펀드에서는 134억원의 자금이 빠져나가, 가장 많은 자금유출 규모를 기록했다. 이 밖에도 '미래에셋인디펜던스증권투자신탁K- 2(주식)' 펀드와 '미래에셋신성장산업포커스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 2[주식]' 펀드에서 각각 120억원, 109억원이 유출됐다.

### 국내주식펀드 소유형별 1개월간 자금 추이

기준일: 2012년06월01일

(단위:개, 억원)

	펀드수	설정액	설정액 순증감	순자산액	비중	현금흐름
일반주식	1,498	426,190	10,456	373,915	67.52	8,930
중소형주식	87	13,286	809	12,195	2.20	866
배당주식	117	17,370	264	15,177	2.74	266
테마주식	356	81,281	584	77,215	13.94	584
K200인덱스	220	60,560	4,787	56,075	10.13	4,516
기타인덱스	126	22,003	1,659	19,185	3.46	1,438
총 계	2,404	620,689	18,559	553,763	100.00	16,600

주1) 제로인 유형분류기준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주2) ETF제외

주3) 설정액 순증감은 재투자분 제외, 현금흐름은 실제 자금유출입액

## 해외주식형 펀드 자금동향

해외주식형 설정액  
3,829억원 감소

해외주식펀드 설정액은 지난 5월 한 달 동안 3,829억원 감소한 29조 9,031 억원으로 집계됐다. 실제 현금유출규모는 2,587억원으로 나타났다. 유로존 재정위기 악화 및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글로벌주식펀드를 제외한 전 권역 별 해외주식형펀드의 자금이탈을 초래했다. 특히 신흥국 시장 비중이 높은 유형에서 자금이탈이 두드러졌다. 해외주식형 펀드 순자산액은 글로벌 증시의 폭락과 더불어 환매로 인해 크게 감소했다.

중국주식펀드 및  
글로벌신흥국주식펀드의  
자금 유출 지속

해외주식형 펀드 세부유형별로 살펴보면 글로벌주식펀드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설정액이 감소했다. 특히 글로벌신흥국주식펀드와 중국주식펀드의 설정액이 각각 1,074억원, 1,688억원 감소해 해외주식형 전체 감소폭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아시아신흥국주식펀드와 아-태주식(ex J)펀드의 자금 유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해외주식펀드 소유형별 1개월간 자금 추이

기준일: 2012년06월01일

(단위:개, 억원)

	펀드수	설정액	설정액 순증감	순자산액	비중	현금흐름
<b>권역별</b>						
글로벌주식	117	4,663	267	3,722	1.76%	312
유럽주식	74	2,205	-56	1,488	0.70%	-40
북미주식	71	2,217	-22	2,214	1.05%	-19
아시아태평양주식	38	1,596	-28	1,210	0.57%	-21
아-태주식(ex J)	95	15,282	-243	12,273	5.80%	-198
동남아주식	75	2,716	-59	2,491	1.18%	-56
글로벌신흥국주식	301	60,474	-1,074	43,509	20.56%	-780
아시아신흥국주식	90	17,278	-199	11,990	5.67%	-132
유럽신흥국주식	66	5,272	-100	2,681	1.27%	-54
남미신흥국주식	73	5,669	-68	4,184	1.98%	-54
프론티어마켓주식	35	323	-20	182	0.09%	-9
기타신흥국주식	3	26	-1	12	0.01%	-0
<b>섹터별</b>						
에너지섹터	74	3,223	-71	1,893	0.89%	-31
기초소재섹터	48	7,596	-42	5,073	2.40%	-30
소비재섹터	22	351	4	351	0.17%	4
헬스케어섹터	8	90	-2	92	0.04%	-2
금융섹터	33	1,223	-32	682	0.32%	-12
공공서비스섹터	2	49	-2	33	0.02%	-2
멀티섹터	59	3,377	-52	2,915	1.38%	-45
<b>국가별</b>						
일본주식	84	4,117	-42	1,741	0.82%	-20
호주주식	6	8	-0	6	0.00%	-0
중국주식	479	140,009	-1,688	101,015	47.74%	-1,214
인도주식	83	7,116	-99	4,632	2.19%	-66
브라질주식	61	3,051	-8	2,277	1.08%	-6
러시아주식	49	10,322	-180	4,260	2.01%	-101
타이완주식	14	46	-2	35	0.02%	-1
말레이시아주식	5	9	-0	9	0.00%	-0
독일주식	23	291	-11	238	0.11%	-10
기타국가주식	24	431	0	407	0.19%	1
총 계	2,112	299,031	-3,829	211,615	100%	-2,587

주1) 제로인 유형분류기준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주2) ETF제외

주3) 설정액 순증감은 재투자분 제외, 현금흐름은 실제 자금유출입액

## 2012년 5월 신규 설정 펀드

### 74개 펀드 신규설정 전체 설정액 5,009억

5월 한 달 동안 총 74개 펀드가 신규로 설정되었으며 이들 펀드의 설정액은 6월 1일 현재 5,009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국내펀드 설정액은 5,009억원, 해외펀드 설정액은 1억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6월 초 기준 신규 설정된 공모펀드의 총 설정액 중 MMF 및 기타유형(ELF포함)은 각각 2,300억원, 1,695억원으로 전체 설정규모의 46%, 34%를 차지했다. 채권형펀드 설정액은 150억원으로 3%, 절대수익추구형펀드 설정액은 105억원으로 2%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MMF의 설정액 증가폭이 가장 컸던 이유는 5월 29일 '교보약사법인용MMF 2' 펀드가 2,300억원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5월에 설정된 펀드 중 가장 큰 규모이다. 한편, 설정액 상위 10개 펀드 가운데 ELF가 5개, 주식형과 채권형 펀드는 각각 2개, 1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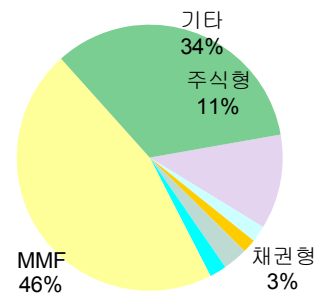
### 5월 신규펀드 설정현황 (공모)

기준일: 2012년06월01일

펀드 유형	국내투자		해외투자		전체	
	설정액	펀드수	설정액	펀드수	설정액	펀드수
주식형	576	16	0	2	576	18
주식혼합형	100	1			100	1
채권혼합형	83	7			83	7
채권형	150	1	0	5	150	6
절대수익추구형	105	2			105	2
부동산형						
MMF	2,300	1			2,300	1
기타	1,695	38	0	1	1,695	39
커머더티형						
운용사 전체	5,009	66	0	8	5,009	74

(단위: 억원, 개, %)

### 신규 펀드 시장 비중 현황



주1) 제로인 유형 분류 체계에 의한

주2) 유형내 ETF는 제외, 클래스 펀드 기준 산출

주3) 2012년 5월 동안 설정된 펀드로 설정액은 6월 1일 기준임.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 5월 신규설정 공모펀드 설정액 상위 펀드

기준일: 2012년06월01일

(단위: 억원)

펀드명	운용사	설정일	설정액	펀드유형
교보약사법인용MMF 2	교보약사자산운용	20120529	2,300	MMF
메리츠주가지수연계28[ELS-파생]	메리츠자산운용	20120525	300	기타
신영밸류고배당(주식)I형	신영자산운용	20120518	300	주식형
메리츠주가지수연계27[ELS-파생]	메리츠자산운용	20120517	300	기타
신한BNPPHK-59[ELS-파생]	신한BNP 파리바자산운용	20120507	218	기타
신한BNPPHK-60[ELS-파생]	신한BNP 파리바자산운용	20120514	163	기타
하이 2IndexHK-10[ELS-파생]	하이자산운용	20120521	154	기타
동양에이스플러스 1(채권)Class C-I	동양자산운용	20120509	150	채권형
한화두번든한(주혼-재간접) A	한화자산운용	20120531	128	주식형
신한BNPP차곡차곡플러스자 1[주혼-파생](종류C-i)	신한BNP 파리바자산운용	20120507	100	주식혼합형

주1) 유형체계 :제로인 유형에 의한 분류

주2) 설정액 상위 펀드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2012년 5월 변액보험

**변액보험 국내주식형 펀드 수익률 급락**

**변액보험 국내펀드 성과**

**변액보험 국내주식형 펀드  
성과 부진**

그리스 연정구성 실패에 따른 유로존 정치적 리스크와 글로벌 경기하방 압력 등 악재로 투자심리가 악화되면서 외국인 중심으로 투매현상이 나타나면서 국내주식형 변액보험펀드 수익률이 7% 가까이 하락했다. 채권형 변액보험펀드는 안전자산 선호심리로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변액보험 일반주식펀드  
-6.95% 수익률**

6월 1일 생명보험협회에서 공시한 기준가격을 기초로 펀드평가사 제로인(www.FundDoctor.co.kr)이 5월 변액보험 펀드의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변액보험 일반주식펀드는 6.9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액보험 가치주식펀드는 -5.47%, 대형주 중심의 KOSPI200인덱스펀드는 -7.07%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또한 일반주식혼합펀드와 일반채권혼합펀드도 같은 기간 각각 -3.41%, -1.65%의 수익률을 나타냈으며 절대수익추구형인 채권알파도 -1.28%의 성과를 냈다.

**변액보험 국내채권형 펀드  
모든 유형에서 플러스 성과**

변액보험 국내주식형 펀드가 저조한 성과를 기록한 반면에 국내채권형 펀드는 모든 유형에서 플러스 수익률을 나타냈다.

그리스, 스페인 우려 등 대외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위험자산회피 심리가 채권시장에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되며 금리레벨에 대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였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변액보험 일반채권펀드가 0.63%의 수익률로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했으며 초단기채권펀드와 우량채권펀드는 각각 0.32%, 0.57%의 수익률을 나타냈다. MMF는 0.26%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변액보험 국내 유형별 평균 수익률 및 순자산액**

기준일: 2012년06월01일

(단위: 개,억원, %)

대유형	소유형	펀드수	순자산액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주식형	일반주식	50	67,294	-6.95	-9.55	-2.04	-19.54
	가치주식	14	13,592	-5.47	-10.31	-1.43	-15.15
	K200인덱스	23	20,388	-7.07	-7.97	1.65	-12.85
주식혼합형	일반주식혼합	126	219,429	-3.41	-4.05	0.59	-6.85
채권혼합형	일반채권혼합	117	151,967	-1.65	-1.82	1.30	-1.84
절대수익추구형	채권알파	15	12,861	-1.28	-1.12	0.64	-0.87
KOSPI				-6.99	-9.20	-0.22	-13.96
KOSDAQ				-1.45	-12.97	-4.23	-2.60
채권형	일반채권	65	69,079	0.63	1.29	2.06	4.69
	초단기채권	9	1,960	0.32	0.84	1.53	3.12
	우량채권	3	3,119	0.57	0.85	1.37	4.20
MMF	MMF	4	2,163	0.26	0.78	1.56	3.14
KIS채권지수(1년 종합)				0.34	0.97	1.89	3.86

주1) 펀드수, 순자산액은 기준일 현재 평균수익률 계산시 대상으로 삼은 펀드들의 합계

주2) 유형별 수익률은 순자산액 10억원이상(채권형 50억원)으로 운용된 펀드들의 순자산액가중 평균수익률을 일별로 계산한 후 기간누적해 산출함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 변액보험 해외투자펀드, 전 유형에서 마이너스 성과

### 변액보험 해외펀드 성과

해외주식형 -5.87%

변액보험 해외펀드는 5월 유로존 재정위기 악화로 약세를 보였다. 이에 변액보험 해외주식형 펀드 평균수익률은 -5.87%를 기록했다. 주식형은 물론 혼합형, 그리고 해외 채권형도 손실을 기록하면서 부진을 면치 못했다. 주식형 가운데 국제 유가가 폭락으로 에너지섹터펀드와 러시아주식펀드들의 큰 하락세를 나타낸 것이 눈에 띄인다.

남미신흥국주식펀드 -9.73%

세부유형별로 살펴보면, 남미신흥국주식펀드가 -9.73%의 수익률로 변액보험 해외주식형 국가 및 권역별 펀드 중 가장 저조한 성과를 보였으며, 일본주식펀드가 -8.93%로 그 뒤를 이었다.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 표명으로 중국주식펀드는 3.61% 하락하는데 그쳤다.

일본주식펀드 -8.93%

글로벌 경기하방 우려로 대부분 신흥국주식펀드들의 수익률이 해외주식형 평균수익률을 하회했다. 글로벌신흥국주식과 유럽신흥국주식펀드는 각각 -7.89%, -7.91%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에너지섹터펀드 -10.07%

국제유가 급락으로 에너지섹터펀드는 -10.07%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러시아펀드도 -8.51%의 부진한 성과를 기록했다.

러시아주식펀드 -8.51%

해외주식혼합형과 해외채권혼합형은 한 달 동안 각각 -3.51%, -1.84%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또한 경기불안으로 해외채권형과 해외 리츠 등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해외부동산형펀드도 각각 -0.98%, -0.79%의 마이너스 성과를 기록했다.

### 변액보험 해외펀드 유형별 수익률 및 순자산액

기준일: 2012년06월01일

대유형	소유형	펀드수	순자산액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해외주식형		63	14,346	-5.87	-8.69	2.79	-13.79
	글로벌주식	15	2,004	-6.17	-6.53	2.78	-8.26
	글로벌신흥국주식	15	3,261	-7.89	-11.60	0.05	-17.12
	유럽주식	1	23	-6.53	-6.38	7.60	-11.69
	북미주식	1	51	-2.05	0.74	13.78	8.47
	아시아태평양주식	3	320	-6.81	-8.13	1.93	-11.31
	유럽신흥국주식	3	128	-7.91	-10.91	1.14	-18.73
	아시아신흥국주식	6	5,042	-5.25	-8.44	3.90	-13.46
	남미신흥국주식	3	199	-9.73	-14.71	-0.00	-18.75
	동남아주식	1	13	-6.54	-3.44	8.13	-4.31
	일본주식	1	30	-8.93	-9.58	1.35	-9.50
	중국주식	7	2,828	-3.61	-6.55	4.79	-14.10
	러시아주식	1	13	-8.51	-12.80	-1.03	-18.08
	에너지섹터	2	149	-10.07	-16.71	-8.18	-19.74
글로벌멀티섹터	3	257	-5.73	-5.19	3.77	-12.21	
커머더티형		12	610	-4.82	-7.71	-2.86	-13.32
해외주식혼합형		74	40,470	-3.51	-4.05	0.89	-8.66
해외채권혼합형		32	14,056	-1.84	-1.92	0.89	-3.61
해외채권형		5	403	-0.98	-0.49	4.39	1.43
해외부동산형		2	186	-0.79	1.22	4.83	3.07

주1) 펀드수, 순자산액은 기준일 현재 평균수익률 계산시 대상으로 삼은 펀드들의 합계

주2) 유형별 수익률은 순자산액 10억원이상(채권형 50억원)으로 운용된 펀드들의 순자산액가중 평균수익률을 일별로 계산한 후 기간누적해 산출함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 5월 증시 급락으로 변액보험 순자산액 감소

### 변액보험 펀드 동향

**5월 변액보험 순자산액**  
**1조 3,678억원 감소한**  
**66조 578억원**

5월 변액보험 펀드는 글로벌 증시 급락으로 순자산액이 크게 줄어들은 모습을 보였다.

펀드평가사 제로인(www.FundDoctor.co.kr)의 유형분류 기준에 따라 변액보험 순자산액을 조사한 결과, 5월 한 달 동안 변액보험 순자산액은 지난 4월 대비 1조 3,678억원 감소한 66조 578억원으로 나타났다.

변액보험 국내펀드 순자산액은 1조 1,132억원이 감소했고, 해외펀드도 2,547억원이 감소했다.

변액보험 국내펀드 중에서 주식시장의 급락으로 인해 주식형펀드와 주식혼합형펀드 순자산액은 각각 5,031억원, 6,918억원 감소한 10조 5,782억원, 22조 9,155억원으로 조사됐다.

채권혼합형펀드의 순자산액은 2,390억원 감소한 16조 3,592억원, 채권형펀드는 2,739억원 증가한 7조 6,512억원으로 집계했다. 절대수익추구형 펀드도 458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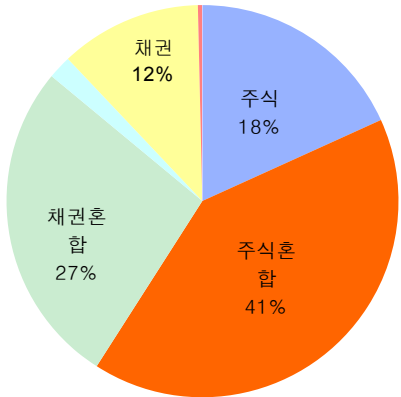
또한 글로벌 증시 하락으로 인해 변액보험의 해외주식형 및 해외주식혼합형펀드 순자산액은 각각 934억원, 1,331억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채권혼합형과 커머더티형펀드도 각각 291억원, 31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해외채권펀드의 순자산액은 41억 증가했다.

[장동현 제로인 펀드애널리스트 [www.FundDoctor.co.kr](http://www.FundDoctor.co.kr)]

### 변액보험 유형별 자금 추이

기준일: 2012년06월01일

(단위: 억원, 개, %)

펀드 유형	펀드수	순자산액			변액보험 시장현황(순자산액 기준)
		4월말	5월말	증감	
주식형	125	110,813	105,782	-5,031	
주식혼합형	141	236,073	229,155	-6,918	
채권혼합형	152	165,982	163,592	-2,390	
절대수익추구형	20	12,421	12,879	458	
채권형	141	73,774	76,512	2,739	
MMF	7	2,217	2,223	6	
기타	16	87	92	5	
국내 소계	602	601,366	590,235	-11,132	
해외주식형	84	15,360	14,426	-934	
해외주식혼합형	87	41,882	40,551	-1,331	
해외채권혼합형	38	14,358	14,067	-291	
해외채권형	11	457	499	41	
해외부동산형	2	188	186	-1	
커머더티형	14	645	614	-31	
해외 소계	236	72,889	70,343	-2,547	
전체	838	674,256	660,578	-13,678	

주1) 제로인 유형분류 기준.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변액보험 국내 주식형 1개월 성과 상위 Top 10**

기준일: 2012년06월01일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푸르덴셜 VUL 롱텀밸류주식형	98	가치주식	-4.09	-7.19	4.95	3.56
PCA VUL 배당주	290	가치주식	-4.63	-8.47	1.78	-6.47
삼성 VUL종신 업종대표주식형	237	테마주식	-4.86	-9.54	-2.53	
삼성 VA 업종대표주식형	288	테마주식	-4.86	-9.56	-2.33	
메트라이프 VUL종신 배당주식형	59	가치주식	-4.94	-10.82	-3.36	-16.15
메트라이프 VA 배당주식형	196	가치주식	-4.94	-10.93	-3.59	-15.98
메트라이프 VA 배당주식형	481	가치주식	-4.97	-10.94	-3.69	-16.34
메트라이프 VUL 가치주식형	8,932	가치주식	-5.07	-10.31	-2.13	-15.79
삼성 VUL&VA 삼성그룹주식형	1,597	테마주식	-5.08	0.87	9.90	1.39
ACE VUL 알파덱스펀드	60	일반주식	-5.12	-6.96	1.56	-9.41

**변액보험 국내 주식혼합형 1개월 성과 상위 Top 10**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교보 VA 배당주식혼합형	374	일반주식혼합	-2.08	-4.42	0.16	-4.32
동양 VUL&VA 주식혼합2형	211	일반주식혼합	-2.10	-0.75	2.22	-5.59
메트라이프 변액종신 배당주식혼합형	216	일반주식혼합	-2.10	-4.78	-0.69	-5.96
푸르덴셜 VUL 주식혼합형	316	일반주식혼합	-2.51	-3.10	2.10	-3.41
교보 VA II 그로스혼합형	5,915	일반주식혼합	-2.56	-3.50	1.16	-6.52
대한 VUL 배당플러스혼합형	557	일반주식혼합	-2.58	-3.16	2.04	-3.75
대한 VA 5대그룹주혼합형III	64	일반주식혼합	-2.59	-2.92	1.62	-7.33
교보 변액종신 혼합형	2,341	일반주식혼합	-2.60	-3.62	0.75	-6.34
교보 VA 주식성장혼합형	1,423	일반주식혼합	-2.61	-3.35	1.15	-5.53
삼성 VUL종신 배당주50혼합형	174	일반주식혼합	-2.62	-3.75	1.02	-7.82

**변액보험 국내 채권혼합형 1개월 성과 상위 Top 10**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푸르덴셜 VUL종신 배당혼합형	212	일반채권혼합	-0.91	-1.91	2.09	0.98
푸르덴셜 VA 혼합형II	122	일반채권혼합	-0.94	-1.84	2.14	1.20
푸르덴셜 VA 배당혼합형	197	일반채권혼합	-0.98	-1.79	2.09	0.77
카디프 VA 구조화펀드2	82	일반채권혼합	-1.16	-2.08	-0.30	-1.85
푸르덴셜 VUL종신 혼합형	2,675	일반채권혼합	-1.16	-1.30	1.91	-1.25
푸르덴셜 VA 혼합형	574	일반채권혼합	-1.16	-1.38	1.60	-1.38
흥국 VA 혼합형	140	일반채권혼합	-1.22	-0.82	1.68	-4.11
카디프 VA 혼합형2	397	일반채권혼합	-1.27	-2.22	-0.19	-1.57
푸르덴셜 변액종신 혼합형	1,059	일반채권혼합	-1.29	-1.89	1.24	-1.72
삼성 VA 혼합형	12,022	일반채권혼합	-1.33	-1.91	0.89	-2.59

**변액보험 국내 채권형 1개월 성과 상위 Top 10**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삼성 퇴직연금 채권형	53	일반채권	0.79	1.79	2.42	
삼성 변액종신 채권형	861	일반채권	0.73	1.40	2.11	4.85
흥국 VA 인덱스 채권형	429	일반채권	0.72	1.28	1.88	4.74
교보 VA II 채권형	1,873	일반채권	0.70	1.42	2.31	5.56
삼성 VA 채권형	943	일반채권	0.70	1.29	1.86	4.30
KDB VUL&VA 채권형	288	일반채권	0.70	1.54	2.30	4.71
교보 VUL종신 채권형	359	일반채권	0.69	1.36	2.13	4.92
흥국 변액CI 채권형	66	일반채권	0.69	1.45	2.30	5.12
카디프 VUL&VA 베스트채권형	363	일반채권	0.69	1.26	1.90	4.69
교보 VUL 채권형	772	일반채권	0.68	1.37	2.22	5.23

주1) 순자산액 50억원 이상, 1개월 수익률순

자료: 제로인(www.funddoctor.co.kr)

주2) 펀드명은 제로인이 변액상품을 구분해 부여한 것으로 변액연금은 VA(Variable Annuity),  
변액유니버설은 VUL(Variable Universal Life)로 표시함

**변액보험 해외 주식형 1개월 성과 상위 Top 10**

기준일: 2012년06월01일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1개월	3개월	1년	연초후
PCA VUL A+차이나	1,363	중국	-0.46	-2.92	5.55	-7.66
메트라이프 VUL 미국주식형	51	북미	-2.05	0.74	13.78	8.47
PCA VUL 아시아인프라	64	아시아신흥국	-3.32	-7.51	0.86	-8.95
AIA VUL 글로벌혼합형(재간접형)	105	글로벌	-3.32	-3.91	3.97	-2.44
알리안츠 VUL 글로벌셀렉트재간접형	80	글로벌	-3.63	-2.56	9.88	-2.10
PCA VUL&VA 라이프사이클2025	128	글로벌	-3.76	-3.89	4.04	-4.47
카디프 VUL&VA 유로메리카배당ETFs재간접형	76	글로벌	-4.03	-3.52	4.40	-3.19
PCA VUL&VA 라이프사이클2035	241	글로벌	-4.18	-4.23	5.22	-4.73
AIA VUL EMEA주식형	96	글로벌신흥국	-4.64	-3.64	4.39	-4.66
메트라이프 VUL 글로벌주식형	135	글로벌	-4.83	-4.30	7.45	-5.08

**변액보험 해외 주식혼합형 1개월 성과 상위 Top 10**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1개월	3개월	1년	연초후
ING VA 아시아퍼시픽성장추구형	157	야태(ex J)	-1.45	-0.34	2.28	1.51
신한 VUL&VA 글로벌 멀티에셋 자산배분형	62	로벌 공격적자산비	-1.56	-2.23	4.30	-1.96
ING VA 아시아고배당성장형	83	야태(ex J)	-1.58	-0.43	2.25	1.24
미래에셋 VA 아시아퍼시픽퀀슈머 혼합자산배분형	219	야태(ex J)	-1.59	0.86	4.02	1.04
미래에셋 VUL 아시아퍼시픽퀀슈머주식안정성장자산배분형	1,004	야태(ex J)	-2.03	1.06	5.09	0.86
미래에셋 VA 글로벌인사이드혼합자산배분형	2,202	로벌 공격적자산비	-2.04	-0.86	3.13	-3.90
PCA VUL&VA 라이프사이클2015	74	글로벌	-2.23	-2.28	2.82	-2.60
동양 VUL&VA 프리미어인베스트먼트글로벌혼합	387	글로벌	-2.26	-1.65	3.51	-1.24
교보 VUL 미국혼합형 II	88	글로벌	-2.39	-0.88	6.06	2.72
미래에셋 변액CI종신 글로벌인사이드자산배분형	446	로벌 공격적자산비	-2.44	-1.06	3.52	-5.33

**변액보험 해외 채권혼합형 1개월 성과 상위 Top 10**

펀드명	순자산액	소유형	1개월	3개월	1년	연초후
미래에셋 VA 아시아퍼시픽퀀슈머주식안정자산배분형	1,336	야태(ex J)	-1.01	0.83	3.37	2.18
삼성 VUL&VA 글로벌혼합형	247	글로벌	-1.29	-1.16	2.59	0.49
미래에셋 VA 아시아태평양Q펀드자산배분형	220	야태(ex J)	-1.29	-0.45	2.60	-0.54
미래에셋 VA 배당주안정자산배분형	1,012	글로벌	-1.31	-3.17	-1.51	-6.94
하나HSBC VA 글로벌혼합형	273	글로벌	-1.38	-1.64	1.87	-1.74
미래에셋 VUL종신 주식안정자산배분형	72	글로벌	-1.56	-1.48	-0.09	-4.48
미래에셋 VA 코친디아포커스7주식안정자산배분형	927	신흥국	-1.56	-2.32	1.08	-3.82
미래에셋 VA 친디아안정자산배분형	3,089	아시아신흥국	-1.62	-1.71	1.93	-2.23
미래에셋 퇴직연금 글로벌APFocus증권투자형(채권혼합):	76	글로벌	-1.63	-0.45	3.27	0.06
미래에셋 VA 차이나안정자산배분형	321	아시아신흥국	-1.73	-1.53	1.90	-3.61

주1) 순자산액 50억원 이상, 1개월 수익률순

주2) 펀드명은 제로인이 변액상품을 구분해 부여한 것으로 변액연금은 VA(Variable Annuity), 변액유니버설은 VUL(Variable Universal Life)로 표시함